

일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 도약

익산시, 청년·취약계층·기업·신산업·소상공인 대상 120개 사업 1860억원 투입

기업도시 익산시가 올해 1,800여억원 대의 예산을 투입해 일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취약계층·기업·신산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과 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1,860억원의 예산을 들여 21개 분야 120개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고용률 62.6% 달성과 1만8,013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하는 고용기본법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올해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착 지원을 위해 22개 178억원의 예

산을 투입해 일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취업, 익산형 이음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창업, 취업 연계서비스 및 직업훈련, 생활인정 분야로 청년 인력 양성과 청년거주 유도에 집중한다.

익산 청년시청 운영을 통한 청년기업 워드워크 청년창업 지원, 매월 성공취업 취업박람회 개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등 특수 시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력을 마련했다.

신장년일자리센터를 비롯해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일자리와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16개사업 721억원의 예산 규모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자립역량을 강화해나간다.

기업 및 신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총18개 사업 233억원을 투입한다. 우수기업 유지와 미래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고용 창출 확대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노동 전환 등으로 지역 고용률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바이오·홀로그램과 같은 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춰 청년 창업 및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글로벌대학30’ 기반 구축을 위해 푸에블로를 방문 중인 이장호 총장이 3월 31일과 4월 4일 CSU-푸에블로(콜로라도주립대학)와 TTC(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를 방문했다.

국제 인프라 탄탄하게 구축

군산대, 씨에스윈드·푸에블로커뮤니티대학 등과 글로벌대학 기반 구축

‘글로벌대학30’ 기반 구축을 위해 푸에블로를 방문 중인 이장호 총장이 3월 31일과 4월 4일 CSU-푸에블로(콜로라도주립대학)와 TTC(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를 방문해 하이퍼튜브 등 미래형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글로벌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5일과 6일에는 씨에스윈드 제2공장 기공식과 푸에블로커뮤니티대학을 방문하고 재학생 실습교육 모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를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방문을 통해 글로벌 연구 인프라는 물론 글로벌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내며, ‘글로벌대학30’에 대비하는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TC(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는 미국 대표 철도장비 시험 및 교육 기관으로 초고속 운송수단인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테스트는 물론 엔지니어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TC와의 협력을 통해 군산대학교의 미래형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

성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일 방문한 푸에블로커뮤니티대학은 1933년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으로 150개 이상의 국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군산대학교 재학생들이 전공 관련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 방문단은 푸에블로커뮤니티대학의 패트리아 A. 에르자벳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를 만나 국제 산학협력 공동 교과목 개발, 학생 및 교직원 교류, 온라인 강의교류, 교과과정 수립 및 편성자료 교환, 학생 상호 인정 및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산대, 푸에블로시, 푸에블로커뮤니티대학은 학생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비자발행과 문화교류를 위한 홈스테이 확보 등 삼자 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 민관학 협력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내 유일 맥아 생산지 군산... 맥주박람회서 뜨거운 관심

서울 코엑스 홍보관 운영... 주한미대사관과 군산맥아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맥주' 생산 추진

국내 유일의 맥아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는 군산시가 양조업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은 물론, 보리의 메카인 군산이 수제맥주와 위스키 양조산업의 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맥주박람회(KIBEX 2023)에서 군산의 맥아 및 수제맥주,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관련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시는 주한미대사관과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제맥주 원료인 군산맥아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맥주'를 생산하기로 했으며, K-위스키 양조사업에 진출하는 신세계 I&B측과도 군산맥아를 사용한 위스키 양조를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맥주는 주한외교관들과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미대사관 주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와 미 독립기념일 행사 등에 선보일 계획으로, 군산맥아의 우수성과 맥주산업도시 군산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80 세대들의 위스키 열풍과 함께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들의 K-위스키 사업 진출로 군산맥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찾아가는 '우리동네 늘 배움터' 4년만에 375% 성장

익산시가 주민이 직접 강의를 계획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동네 늘 배움터'가 4년 만에 375% 성장했다.

'우리동네 늘 배움터'는 학습 접근성이 낮은 읍·면·동 단위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주제로 원하는 시간대 집 근처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0년에 12곳에 불과한 늘 배움터가 시민들의 신청 폭주로 2021년 비대면 운영에도 불구하고 25개소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39개소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코로나19 비대면 운영 첫 해였던 2020년과 비교해 올해는 4년만에 375%로 확대돼 45곳이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10일부터 18개 지역 45개소 우리동네 늘 배움터에서 88강좌를 순차적으로 개강한다고 밝혔다.

늘 배움터는 지난 2~3월 공모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기관·단체 등 마을 내 유휴시설 장소 사용 확보가 가능한 45개소가 선정됐다.

어린이 중장년층, 어르신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공예, 칼라바, 네일아트,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88강좌가 개설되며 총 750여명의 학습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조선업도약센터, 취업캠프 운영

전북조선업도약센터는 오는 12일 '다(多)모아!잡(JOB)이러' 취업캠프를 개최한다.

'다(多)모아!잡(JOB)이러'는 군산 주력산업인 제조업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에이브호텔 탄탄선홀에서 열릴 예정으로 △기업 취업정보교류 △인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의 기본

이해와 면접 분위기 체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파악과 취업준비도 평가로 구성되어 취업 준비를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역량 강화와 자신감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구직자들의 개인별 취업준비도를 점검하고 이미지 메이킹 인사지원 서류 작성 및 면접 노하우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내 기업체의 인사담당자와의 실질적 모의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마라톤 대회 홍보

군산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회장 배학서)가 9월 2023년 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를 맞아 오는 9월 8일과 9일 이틀간, 군산우체통거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6회 손편지축제'를 홍보하며 길거리 응원에 나섰다.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회원들로 이뤄진 군산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는 9월 마라톤 코스 중 하나인 월명동 일원에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손편지축제를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는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간접히 열망했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경관협정을 맺고 폐우체통에 색과 그림을 입혀 군산우체국 앞 도로가에 설치했던 작은 행사로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이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조정 부정유통 단속

군산시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보유한도를 조정해 운영한다.

시는 오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고액결제를 억제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이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 단속은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에 대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 점포를 현장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시행·유희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